

‘생명 복제’ 집담회 참관 후기

A Brief Comment on the Forum about Human Cloning

이상원

총신대 교수, 기독교 윤리학

필자는 기학연 소식지를 통하여 생명복제 문제를 다루는 집담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 99년도 2학기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의료 및 성윤리”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이 집담회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강의 준비 일정이 너무나 급박하여 참석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설교자로 내정되었던 분이 사정상 참석이 어렵게 되어 급히 필자에게 설교를 부탁해 왔다. 필자는 이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집담회에 참석해서 공부를 더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또 집담회가 끝난 후 집담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소감과 곁들여 모 잡지에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부탁을 거절했었다. 그 이유는 글의 성격이 기학연을 대표하는 성격인데, 필자가 그와 같은 입장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기학

연 기관지에 실을 수 있도록 간단한 소감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고, 또 기학연 기관지에 실리는 글은 관전자의 입장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써도 너그럽게 양해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수락하여 이 소감을 쓰게 되었다.

우선 매우 인상적이고 고마웠던 것은 박세필 박사와 김상득 박사의 발표 논문들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된 좋은 논문들이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박세필 박사는 이번 발표를 위하여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하여 듣는 사람들의 편의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박세필 박사의 발표 논문은 복제 문제에 대한 의료기술적인 과정들을 문외한의 입장에 있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김상득 박사의 논문은 복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입장들을 소개하고 비평함으로써 청중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공헌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집담회에서 두 발표자의 논문 발표를 듣고 받았던 인상은 두 편의 중심 논문들이 다만 의료기술적인 차원들과 일반 윤리적인 입장들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머물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이라는 지평 안에서 계획된 집담회라면 중심 논문들 안에 기독교적 신앙과 세계관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후에 박세필 박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김상득 박사의 경우는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입장과 해석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박세필 박사의 논문은 세포 복제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다만 그 기술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만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박 박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판단은 납득이 가기도 한다. 곧 박세필 박사는

체세포 복제 기술이 인간 복제에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견제 장치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기술을 인간의 불치병 치료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박세필 박사의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볼 때 세포 복제 기술이 인간의 질병 퇴치라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느냐, 아니면, 인간 복제라는 위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세포 복제 기술 체계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포 복제 기술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 창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닌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에 대하여 때로는 금령을 발하신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금령을 내릴 필요조차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동물이든 인간이든 복제 기술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창조 질서를 중대하게 교란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복제 기술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물들은 일정한 발정기가 되었을 때 성욕을 느끼고 성적 만족을 누리면서 새끼를 배고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동물들의 질서인데, 인간이 인간의 식량 수급을 위하여 이 질서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동물들로부터 정상적인 성교와 출산의 기회를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 인간의 병든 장기를 대체할 새로운 장기를 얻기 위하여 쥐의 등판에 인간의 귀나 신장이

기형적으로 자라나게 함으로써 동물들로부터 정상적인 생존 방식을 빼앗고 기형적인 일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복제 기술을 통하여 생산해 낸 장기들을 인간에게 이식했을 때 시간이 흘러 인간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재난이 뒤따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복제 기술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이미 노정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바로 그 기술의 유용성만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생명 복제 기술의 등장을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발견한 일이나 원자탄을 발견한 일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르는 비교다. 생명 복제 기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창조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기술로서 창조 질서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해야만 성립되는 기술이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지동설 발견은 생명 창조와는 관계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인간이 모르고 있었던 원리를 새롭게 찾아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탄의 발견도 생명 창조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계 안에 있는 원리들을 그저 발견한 것 뿐이다.

생명 창조 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생명 창조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우주안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 내는 일을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상득 박사의 논문은 김 박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윤리학자가 쓴 논문과 별다른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김 박사의 논문은 대체로 인간 복제 기술을 시행했을 때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인간 관계상의 혼란에 대해서는 바르게 지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복제 기술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의는 보류되고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박세필 박사의 논문에서처럼 김

박사의 논문에서도 복제 기술은 이미 정당한 의료 기술 또는 생명 공학적인 발전으로서 그 기술 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 앞에서 박세필 박사의 논문에 대하여 제기한 의문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김 박사는 인간 복제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문제 곧,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하느냐?” 라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논의를 전개한다. 이로 인하여 김 박사의 논문은 본인의 논증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글이 되었다. 김 박사의 논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김 박사는 수정된 이후 14일째 되어서 자궁에 착상된 때부터 비로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 14일 어간에 배아를 이용하여 장기를 복제하는 등과 같은 자의적인 전배아 처리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 입장은 일반 의료 윤리학자라면 누구나 평범하게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 물론 기독교 윤리학자라고 해서 일반 윤리학자와 항상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은 인간의 시원(始原)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서 기독교 윤리학자의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고려하는 가운데 거기에 부합하는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서 필자는 김 박사와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태중에 있는 인간 존재를 가리켜서 인격적 주체를 뜻하는 ‘나’ 또는 ‘아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시51:5; 139:13; 눅 1:41,4). 그러면 이처럼 성경이 태중의 아이를 인격체로 호칭할 때 그 호칭이 포괄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수정란부터인가? 아니면 착상 이후부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성이

가능하다.

(1) 인격체로 호칭된 자궁 속의 존재는 착상되어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존재인데, 이미 착상에 성공하여 자라고 있는 존재는 수정란이 된 바로 그 존재이므로 수정란 상태에까지 인격적 호칭을 부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수정란 안에는 이미 그것이 인격적 존재로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고, 착상된 이후 임신부의 신체로부터는 자양분만을 얻는 것일 뿐 이 수정란이 인격적 존재가 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원료를 얻는 것이 아니다. 임신부의 자궁은 이 수정란이 인격적 존재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착상전의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고 착상 후의 배아만이 인격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며, 성공적으로 착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착상 전의 배아와 후의 배아 사이에 생기는 결정적인 불연속성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3) 착상하지 못하고 죽는 배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란을 인격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착상한 후에도 죽는 배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쉽게 논박될 수 있다.

(4) 따라서 성경이 태중의 인간 존재를 인격체로 호명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 때 과학의 연구 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착상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기보다는 성경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수정란 시기부터 시작되는 전 과정에 인격체의 호칭이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한 일일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가 집담회에 참석하고 느꼈던 몇 가지 소감을 적어보았는데, 이와 같은 몇 가지 소견은 집담회에서 발표한 두 분의 논문의 가치를 결코 손상시킬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